

# 국민연금 CIO 선임 발표 감감무소식... 내정설만 난무

### 최근 주진형 전 사장 선임 가능성 부각... 노조 "적합하지 않아" 1년여 공백사태 수익률 악화·인력 이탈·국제조용 거리 전력

정부가 1년여간 공석인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CIO) 최종 면적을 실시한 지 두 달 가까이 지나지만 선임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현재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안효준 BNK금융지주 글로벌 총괄부부장(사장) 등을 중심으로 내정설만 난무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스포트라이프에서 멀어졌던 주 전 사장이 다시 급부상하자 노조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CIO는 지난해 7월 강명욱 전 CIO가 인사 책임 등을 이유로 사표를 낸 후 현재 1년이 넘게 비어있다. 올해 5월 확대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가 유력 후보로 떠올랐지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개입 논란'으로 잡음만 일었으며 결국 6월 27일 재공모 절차에 돌입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 7월 19일 마감한 CIO 재공모에는 30명이 지원했고 면접 대상자는 13명으로 추려졌다. 이어 8월 21일 진행

된 면접에서 통과자는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안효준 BNK금융지주 글로벌 총괄부부장(사장), 이승철 전 산림조합중앙회 신용부문 상무, 장부연 전 미래에셋자산운용 경영관리부문 대표 등 5명이다.

당시 복지부는 면접 통과자 5명을 공식화하며 "최종 검증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 발표할 방침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다. 청와대 인사 검증 때문이라고 하지만 일본 공적연금펀드(GPIF), 노르웨이 국부펀드(GPF)와 함께 세계 3대 연기금으로 평가받는 국민연금의 수장 자리가 1년여간 비어있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렇게 기금운용의 공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국민연금 수익률은 악화되고 있다. 올 들어 지난 7월 말까지 국민연금의 전체 기금운용 수익률은 연환산 기준으로 1.88%로 지난해 연간 수익률(7.26%)의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또 기금운용본부 내 인력 유출이 심화되며 조직 와해 우려까지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해외 유력 언론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기에 이른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JS)은 지난날 12일자 신문 1면에 한국의 국민연금 CIO가 1년 넘게 공석인 사연을 소개하며 "한국의 국민연금 CIO는 낮은 임금과 정치적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기속사를 써야 한다. 돼지 분노 냄새에 대한 반응은 필수다"라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특정 인사의 CIO 내정설이 조직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주 전 사장 내정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주 전 사장은 2013~2016년 한화투자증권 사장 재임 시절에도 리포트 확대, 고위험 주식 선정 발표 등의 과격 행보로 '증권업계의 톱호테'라는 별명을 얻은 인물이다. 특히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내 기관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내 관심을 끌었다.

또 2016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 부단장과 국민경제생활실부실장 등을 역임했다.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1차 청문회 당시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조직폭력배처럼 행동한다"는 발언으

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러한 개혁 성향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전문성은 부족하다는 것이 약점으로 거론된다.

주 전 사장의 경력은 기금운용보다는 전략기획·마케팅·리테일 분야에 치우쳐 있다. 또 주 전 사장이 CIO로 부적합하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나오는 등 조직 관리 능력에도 의문이 제기된 상태이다. 주 전 사장 시절 한화증권 직원이었다고 소개한 청원인은 "임직원들과 대화는 자신의 지식만을 뽐내며 모멸감을 주기 일쑤였다"라고 폭로했다. 주 전 사장 유력설에 대해 노조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경진 국민연금 노조위원장장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은 특별한 한 사람이 와서 잘나가는 특정 주식 몇 개를 사고팔아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탑워크를 발휘해야 하는 자리인데 주 전 사장은 자기 개성이 강해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평판 조화를 거친 결과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할 수 있을 만한 자격 자체가 안 된다"고 평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지난 2일 성명서를 통해 "환경보호와 사회공헌, 윤리경영 측면에서 볼 때 주 전 사장이 한화투자증권 사장 시절 보인

행태는 전형적인 노동 착취로 윤리경영 원칙을 위반했다"며 "이런 점에서 노동자들을 정리하고한 인사가 스튜어디스 코드를 이행할 CIO가 될 자격은 없다"라고 발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 전 사장 내정설에 대해 "현재 국민연금 CIO 선임절차가 진행 중이며 특정 후보자가 결정된 사실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CIO 후보자에 대한 분위기를 떠보기 위해 내정설을 흘리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정부가 600조원이 넘는 국민 노후자산 관리 총책을 맡을 수장 선임을 하루빨리 서둘러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이 맡긴 600조원이 넘는 노후자금을 국내·외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는 조직이다. 기금운용본부를 이끄는 CIO는 사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 '자본시장 대통령'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임기는 2년이며 성과에 따라 추가로 1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청와대의 최종 인사 검증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민연금 이사장이 복지부 장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 CIO를 임명할 예정이다. /뉴시스

## NH농협, '인삼' 농작물 재해보험 오늘부터 판매

NH농협손해보험 전북총국(총국장 임정현)은 '인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오늘부터 시작, 11월 30일 마감된다고 밝혔다. 이는 '인삼' 재배하는 농업인들이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7일 강조했다.

또한, '인삼' 농작물 재해보험은 인삼(2년근 이상)의 (태풍, 폭설, 병해, 폭염, 집중호우, 침수, 우박) 등 이와같은 '자연재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해가림시설'의 경우 자연재해와 조수해(새 또는 짐승으로부터의 피해)로 인한 피해도 보장한다.

특히,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약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는 보험으로 농가는 20% 정도만 부담하고 올해부터는 전년도 무사고 농가과 폭염 대비 관수시설 설치 농가에 대해 보험료를 5% 할인하여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덜게 했다. 금년부터는 정부예산 추가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사업이 조기종료될 수 있는 만큼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김영태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임용택 은행장)은 전북장애인복지관(정호영 관장)과 함께 지난 5일 전북은행 본점 19층에서 전북은행과 함께하는 '2018 행복한 추억, 가족사진' 전달식을 했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김종원 전북은행부행장, 정호영 전북장애인복지관장, 배인재 전북사회복지사업회장, 오준규 한국사진작가협회 사진작가, 소영섭 스튜디오 오름, 안유순 사진작가, 협력기관 관계자 등 수해가 정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2018 행복한 추억, 가족사진 사업은 (경제적, 지리적)인 이유로 문화적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가정에 가족사진 촬영의 기회를 제공해 가족 간 유대강화와 친밀감 형성을 위해 마련,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사진촬영을 진행, 각 가정에 행복한 추억과 사랑을 선물했다. 가족사진 촬영은 오준규 다큐멘터리 사진작가의 재능기부를 통해 진행됐고 소영섭 스튜디오 '오름', 안유순 사진작가의 협력으로 도내 14개 시·군 장애인 40가정, 노부부 30가정, 사회복지사 10가정 등 총 80가정에 전달할 사진 액자를 제작했다. /김영태 기자

## 전북은행, 행복한 추억 전달식

## “국민연금 기금운용 직원들 해외위탁사 돈으로 해외연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 100여 명이 최근 5년간 해외 위탁운용사로부터 8억5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지원받아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공공자금 해외투자실태' 자료와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114명의 기금운용본부 직원이 해외 위탁운용사 18곳에서 숙박비, 식비, 교통비, 항공료 등 총 8억4700만원의 국외 연수 비용을 지원받았다.

연도별 연수 인원과 지원받은 비용은 각각 ▲2013년 19명, 9400만원 ▲2014년 24명, 2억8000만원 ▲2015년 24명, 2억3100만원 ▲2016년 26명, 2억6000만원 ▲2017년 21명 1억8000만원 등이다.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대가성 여부를 불분하고 급품 등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굴리는 기금운용 본부가 위탁운용사 선정과 운용의 공정성을 해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실제 기금운용본부는 해외 주식과 채권을 위탁한 운용사에 최근 5년간

연평균 2032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기금운용본부에 임직원의 해외연수 비용은 국외유여비 예산으로 집행하고 향후 해외 위탁운용사가 이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18개 해외 위탁운용사와의 전략적 제휴 계약 내용을 수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에 올해부터 기금운용본부 직원 해외연수 비용 전액을 공단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춘숙 의원은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의 국외 교육 훈련을 위한 경비가 예산에 있음에도 기금운용본부가 일부 위탁운용사와 전략적 제휴연수라는 계약을 맺고, 위탁운용사의 돈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전략적 제휴연수와 관련해 과거 계약했던 내용을 모두 수정함과 동시에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국외교육유여비를 활용해 향후 공단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의가 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 ‘지역축제 속 우체국 문화 알리기’

나만의 맞춤형엽서 제작 · 편지쓰기 · 포터블브랜치 등 운영

전북지방우정청은 지난 5일부터 열린 김제 지평선 축제를 시작으로 전북도내에서 진행되는 각종 지역축제에 우체국이 참여, 우체국 문화를 소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제지평선축제 속, 우체국에서는 축제장을 찾은 고객 대상으로 소중한 추억을 촬영한 사진(스마트폰 등) 중 원하는 사진을 즉석 인쇄, 세상에 하나 뿐인 나만의 '맞춤형엽서'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

특히, 느린우체통을 설치, 1년 후 나에게 보낼 편지를 쓰는 소중한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김성철 전북지방우정청장은 "우리 지역의 전통과 자연, 풍물이 어우러진 축제에 참가하는 도민들이 지역축제, 우체국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방우정청은 "구절초 축제(정읍산내 6일~14일), 임실N

치초축제(임실 6일~9일), 전국체전(익산 12일~18일), 모양성제(고창 17일~21일), 순창장류축제(순창 19일~21일), 정읍사문화제(정읍 19일~21일)에 참여, '우표전시회, 편지쓰기, 모바일뱅크 시연' 등 풍성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 김태홍 스포츠 이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 태 홍



## 서바이벌

ATV / 버기카  
레프팅 / 카약  
스키 / 보드 펜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485-2)

**대표 경력**

일피인 스키 및 점프선수활동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  
국제대회 다수 참가 및 우승  
동계U대회 국가대표 출전  
국가대표 코치 역임  
일본 스포츠 국제대회 참가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NSL/NSL2)취득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베르티 지역 취득  
응급처치 요원 자격증 취득  
레프팅 가이드 지역 취득  
수상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  
연)김태홍 스포츠 이카데미 대표